




#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0.02



2017년, 아들을 낳기 직전  
폭도의 손에 남편을 잃은 앨리슨

나이지리아

예수님만 빼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기독교인

# 풀리 부부가 전하는 글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우리 죄를 그분께 드리고 대신 그분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흠 없이 영원히 살 것이며 다시는 슬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고후 5:21).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이 당하신 치욕을 당하고, 세상 욕망을 죽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히 13:13, 골 3:5-10, 뉘 9:23).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거부당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만 그들에게 모욕당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지만 그들에게 비방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지방에 사는 담대하고 신실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려움에 빠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번 2월 소식지에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나이지리아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 앨리스

### 남편을 살해한 이들을 용서한 부인

“성경을 읽으면 힘이 나요. 주시는 이도 주님이고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라고 말씀하니까요.” 혼자 다섯 자녀를 키우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여성 앤리스Alice는 말한다. 순교자의 아내 앤리스는 ‘상실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2013년, 풀라니 Fulani 부족 무슬림들이 앤리스의 남편을 집 밖으로 유인해 총을 쐈다. 한 시간이 지나 당국자들이 도착했지만 앤리스의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다섯 아이를 홀로 키우기도 만만치 않은데 앤리스는 농사까지 지어야 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풀라니 부족 무슬림들이 다시 쳐들어왔다. 이번에는 마을 전체에 불을 질러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도망치는 주민을 죽이려고 보초를 세워놓았지만, 앤리스는 아이들을 데리고 간신히 도망쳤다.

그렇게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다. 앤리스는 잠도 못자고 올면서 오랜 시간을 일했다. 그리고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매달 십일조를 드리고 자녀들의 교육비를 저축했다. 그러나 풀라니 부족이 다시 와서 농작물을 못 쓰게 망쳐놓는 바람에 그 동안 저축한 돈으로 생필품을 사야 했다.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엉망이 된 밭을 살려 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사를 돋고, 소박한 새집의 집세를 내주었다.

“순교자의 소리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거나 신앙을 버리고 불신자가 되었을 겁니다.”

풀라니 부족 폭도들은 그 이후로도 또 공격해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강요했다. 폭도들의 손에 남편과 집을 잃었지만 앤리스는 말했다. “저는 풀라니 부족에게 분노를 느낀 적이 한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펫박을 받을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또한 성경은 경계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 제임스

###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2018년 6월, 병원에서 헌혈을 하던 제임스James는 집으로 오지 말라는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이웃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오다 마을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남편이 집에 오는 길에 그 사건에 말려들까봐 걱정이 된 아내의 전화였다. 하지만 정작 위험에 빠진 것은 그녀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미처 알지 못했다.

풀라니 부족 무슬림 폭도들이 두 부부가 사는 마을을 습격했고 집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 제임스의 아내는 막내딸을 안고 도망치려 했지만 어디선가 탄환 하나가 날아와 어린 딸의 배를 관통한 뒤, 그녀의 가슴에 와 박혔다. 결국 제임스의 아내는 죽고 말았다.

이 대학살로 주민 86명이 살해당했다. 마을에서는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식이 대대적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부상당한 딸이 수술을 받고 입원한 2개월 동안 딸을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제임스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는 이런 폭력 사태로 아내가 남편을 잃는 경우는 많지만, 남편이 아내를 잃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별 훈련을 받은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가 제임스와 접촉하면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가족이 정신적 충격을 이겨내도록 돋고 있다. 이 사역자를 만난 후, 제임스는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제임스는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에요”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임스의 믿음이 되살아났다. 제임스는 자신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해졌다고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단언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절대 저를 버리지 않으세요.”



## 소식지(기도달력) 신청 방법

- 온라인(vomkorea.com) 신청
- 사무실(02-2065-0703)로 전화하여 신청
- 문자(010-3151-2065)로 신청- 수령자 주소와 성명을 보내주세요.



#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김교신홈]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7길 15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한국 기독교 재정투명성협회  
1호 인증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2020년 2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b>시리아</b> 전쟁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시리아에 머물기로 결단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	3	4	5	6	7	8
<b>레바논</b>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기도해주세요.	<b>브루나이</b> 경찰에게 심문받고 강제 추방된 전도팀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b>스리랑카</b> 힌두교도와 불교신자가 다수인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용기를 얻도록 기도해주세요.	<b>아랍에미리트</b>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주세요.	<b>타지키스탄</b>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정부가 불법으로 여겨도, 교회가 그 일을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b>모로코</b> 비밀경찰에 불잡힌 기독교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기도해주세요.	<b>콜롬비아</b> 목회자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 중인 목회자들이 '게릴라 점령 지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9	10	11	12	13	14	15
<b>인도</b>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매를 맞고 부상당한 아미트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주세요.	<b>오만</b>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기독교인들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주세요.	<b>부탄</b>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b>모로코</b> 기독교인들이 가족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b>나이지리아</b> 문맹 퇴치 프로그램 덕분에 기독교인들이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b>말리</b> 살해 위협을 받은 목회자 두 사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b>요르단</b> 난민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계속 주 안에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16	17	18	19	20	21	22
<b>아제르바이잔</b>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b>부탄</b> 이 나라에서 새로운 목회자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주세요.	<b>모리타니</b> 이슬람을 떠나는 것이 불법인 상황에서 새 신자들을 보호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b>네팔</b> 압박이 거세져도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세요.	<b>에티오피아</b> 자칭 예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핍박당하는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b>나이지리아</b> 공격당한 뒤에 회복 중인 카두나주 남부 지역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b>아프가니스탄</b> 기독교인들이 가정에 모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3	24	25	26	27	28	29
<b>বাংলাদেশ</b> 핍박을 피해 이주한 아자르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b>터키메니스탄</b> 정부의 엄한 통제 아래서 창의적이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b>레바논</b> 레바논 땅이 이웃 나라에서 도망친 이들을 위한 피난처로 계속 남아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b>베트남</b> 기독교인들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b>바레인</b>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용기를 얻도록 기도해주세요.	<b>예멘</b>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힘과 용기를 얻도록 기도해주세요.	<b>오만</b> 세계 각지에 있는 오만 기독교인들이 담대히 믿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짐을 꾸려서 마을을 떠나고 싶었던 순간  
순교자의 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공격받아 의지할 데 없이 무력하게 남겨지고 그리스도의 몸에서도 분리된 것처럼 느꼈던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여성의 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순교자의 소리를 사용하여 그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소식지를 넘길 때마다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세계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핍박받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붙잡아주는 소망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을 위해 1회 특별 후원을 해주세요! 좋고, 기독교인을 가장 모질게 핍박하는 지역과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서 순교자의 소리가 적절히 일할 수 있도록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세요! 좋습니다.

웹사이트 지원:

<https://vomkorea.com/donation/>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받는 분 통장 표시란'에 본인의 성명과 함께 '나이지리아'라고 기입해주십시오. 기입하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 컴포트

### 분노를 떨쳐버린 소녀

2012년 부활절 전날 밤, 당시 13세였던 컴포트Comfort는 엄마가 뒷방 침실에 아빠를 숨기는 것을 보았다. 몇 시간 전에 멀리서 폭탄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보코하람Boko Haram이 온 것이었다. 그들은 컴포트의 집 옆에 있는 교회에 불을 지르고 컴포트의 아버지를 찾았다.

보코하람 대원 몇 명이 엄마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동안, 다른 대원들은 집을 수색했다. 그들은 컴포트의 엄마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다고 말하지? 그 아들한테 빌어봐! 오늘이 네 인생 마지막 날이야. 목숨이 끝장나는 날이라구!”

가족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결국 보코하람 대원들은 컴포트의 아버지를 찾아내, 가족들 앞에서 총을 쐈다. 엄마는 죽어가는 아버지를 무릎에 누이고 기도했다. 엄마가 기도를 마치자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아멘’이라 말한 뒤에 숨을 거두었다.

컴포트의 엄마는 시댁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그래도 엄마는 어렵사리 돈을 구해 은신처를 마련했다. 그러나 보코하람은 다시 공격했고, 그곳을 떠나라고 강요했다. 마침내 엄마와 딸은 순교자의 소리에서 마련한 기독교인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안식처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컴포트는 다른 많은 순교자 자녀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영적 상실감과 싸워야 했다. 가족 중에 누가 목소리를 높이기만 해도 컴포트는 방문을 잠그고 숨어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그때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을 가슴에 담고 살았어요”라고 그녀는 회상했다.

2018년, 순교자의 소리는 컴포트와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은 십 대 청소년들을 위해 수련회를 개최했다. 그곳에서 컴포트는 핍박당하고 벼림받은 십 대 친구들을 만났다. 이들은 성숙한 나이지리아 성도들에게 양육받으면서 용서와 증오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배웠다.

수련회에 참석한 이후 컴포트는 분노를 다 떨쳐버리고 심지어 보코하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 아이샤

###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여성

“저는 매우 광적인 무슬림이었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풀라니Fulani 부족 여성 아이샤Aisha는 말한다. “기독교인은 이교도 이기 때문에 친구로 지내면 안 되고, 알라를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도 안 된다고 저는 배웠어요. 기독교인은 이슬람 신앙을 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는 말도 늘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아이샤는 모범적인 무슬림 여성이다. 18세에 결혼해 1년 뒤에 첫아이를 낳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집 거실을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해(여성들이 지역 사회 사원에서 남성들과 섞여 기도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여성들이 그 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했다. 아이샤는 바우치Bauchi주에 있는 이슬람 연구 대학College of Islamic Studies에서 공부했고, 무슬림 여성 연맹Federation of Muslim Women의 주 대표였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알라는 그녀의 기도를 듣지 못했다.

아이샤는 오래전부터 편두통을 앓아 심신이 쇠약해 있었다. 기도도 해보고 전통 요법도 써보고 이슬람 의식을 행해보기도 했지만 편두통은 멈추지 않았다. 이슬람 의식을 행하던 어느 날, 바닥에 쓰러진 아이샤는 음성을 들었다. “네가 나를 예배하면 좋겠구나.”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아이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아이샤는 기독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4년 뒤에는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러나 아이샤는 기독교로 개종한 대가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했고 친정 식구들은 남편을 편들었다. 기적적으로 법원은 두 자녀의 양육권을 아이샤에게 주었다. 하지만 아이샤의 딸은 아버지와 살겠다고 결심했고, 아들도 사회에서 압박받는 엄마와 사는 것이 불편해서 곧 누나의 뒤를 따랐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아이샤와 어울리기를 두려워했다. 아이샤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녀를 회심시켰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순교자의 소리는 아이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도록 도와주었다. 그곳 사람들은 아이샤가 이슬람에서 개종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엄마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에 두 자녀도 기독교로 개종하여 엄마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현재 신학교에 다니는 아이샤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과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 전에 그녀를 죽이려고 했던 전 남편과 친척들이 아직도 그녀를 찾아다니지만, 그녀는 기독교로 회심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릴 창조하신 거잖아요”라고 말한다.



# 해외소식



베트남에는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몽Hmong족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25%가량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몽족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는 기독교에 대한 이 소수 민족의 관심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오래전부터 공산주의 베트남 정부는 몽족을 반역자로 여겨왔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이들이 미국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몽족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들을 반역자로 보는 공산주의 베트남 정부의 의혹(베트남 정부는 기독교인을 CIA의 스파이로 간주한다)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계속 압박하지만 기독교로 개종하는 몽족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사헬 지대(Sahel, 사하라 사막 남쪽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지대)까지 세력을 확장하기를 꾀하면서 말리에서 부르키나파소로 밀려들고 있다. 이들이 부르키나파소 전역에서 폭력 사건을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고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는 말한다. 현재까지 사헬 지대 지하디스트(jihadist,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은 대체로 말리와 니제르Niger에서 활동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금 5개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2019년 4월 28일, 무장 괴한들이 실가지Silgadji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 교회를 공격하여 목회자와 교인 5명을 살해했다. 5월 12일에는 다블로Dablo에 있는 가톨릭 교회를 공격해 신부와 교인 5명을 살해했다. 이를 뒤에는 와이구야Ouahigouya시에서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 4명을 살해했다. 그리고 5월 26일에는 가톨릭 교회를 공격해 교인 4명을 살해했다. 6월 9일에는 지하드 무장 전사들이 아르빈다Arbinda 마을을 공격해 최소 19명을 살해했다.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2017년에 미얀마로 탈출한 60만 명 이상의 로힝야Rohingya족 가운데, 방글라데시 난민 수용소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다수는 자신들의 개종 사실을 알리기를 매우 조심스러워한다. 무슬림이 주를 이루는 난민 수용소에서 기독교인들이 팝박받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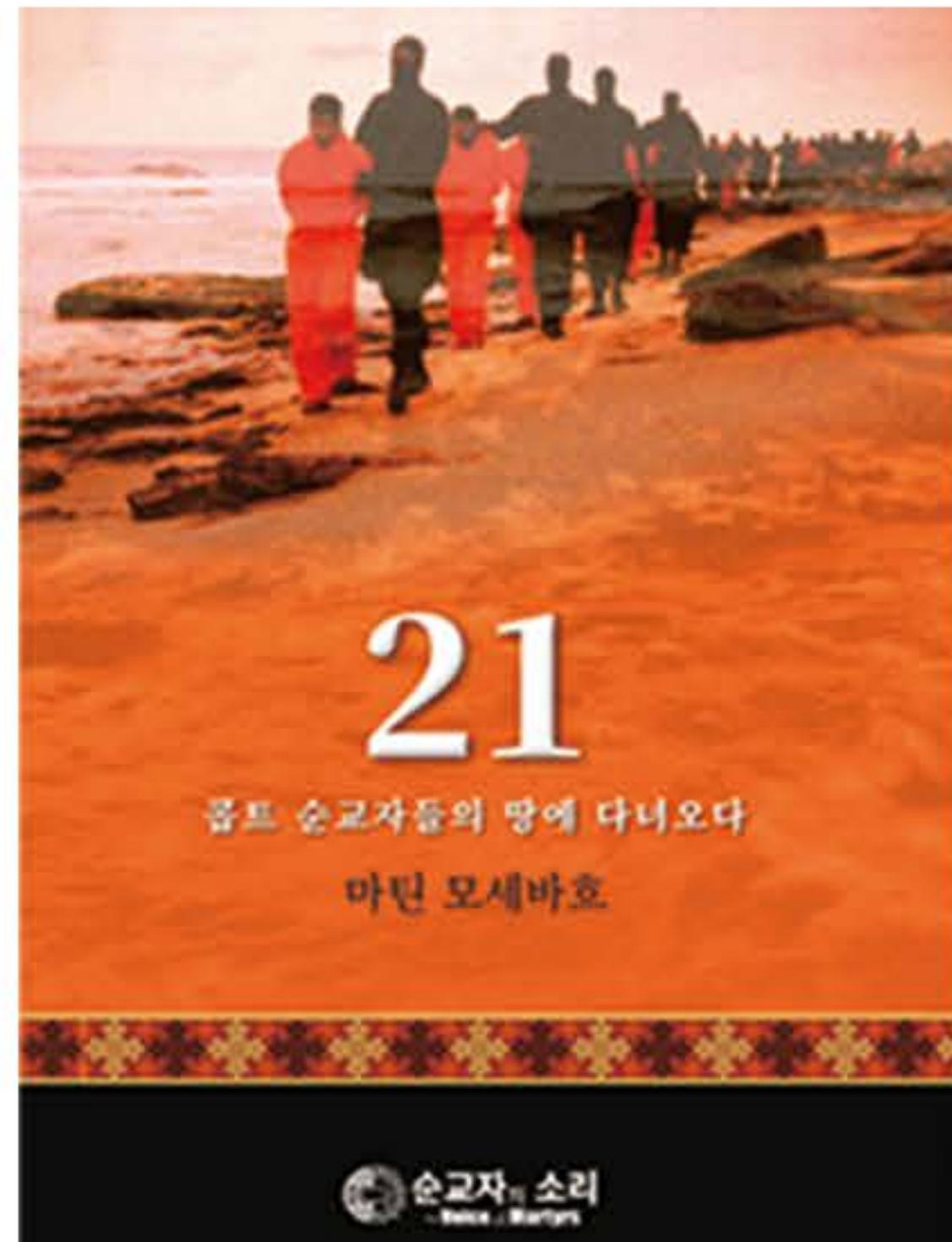
2019년 5월 10일, 무슬림 한 무리가 시장을 지나가는 14세의 기독교인 소년에게 침을 뱉었다. “제가 믿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적혀 있던데요”라고 소년이 말하자 무리는 격분했다. 그들은 소년을 때리고, 찌르고, 납치해 밤새도록 붙잡아놓았다. 5월 12일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폭도들이 신자들의 대나무 집 10채를 파괴하고 살림살이들을 훔쳐 갔다. 그들은 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4살 된 아이를 납치했으나 몇 시간 뒤에 돌려보냈다. 순교자의 소리 현지 사역자는 말한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하지만 박해가 두려워 뒷걸음치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쿠바에서 예배당 신축은 불법이지만 1953년 혁명 이전에 건축된 예배당은 정부의 인가를 얻어 증축하거나 보수할 수 있다. 1932년에 건축된 마라나타 Maranatha 교회는 계속 늘어나는 교인(현재 교인 700명)을 수용하기 위해 증축을 신청했고 마침내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 쿠바 정부는 마라나타 교회의 증축을 인가했지만 며칠이 지난 뒤에 아무 이유도 밝히지 않고 취소해버렸다. 이는 최근에 일어난 많은 팝박 사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에 대해 쿠바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더 굳게 결속하여 기도하고 있다. “쿠바 교회가 이렇게 강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쿠바에서 장기간 일한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 한 사람은 말한다. “쿠바 교회는 서로 돋고 의지합니다. 이들은 한 가족으로서, 정부의 위협과 공격에 함께 맞서고 있습니다.”



# 핍박받는 교회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나보세요



한국 VOM 최신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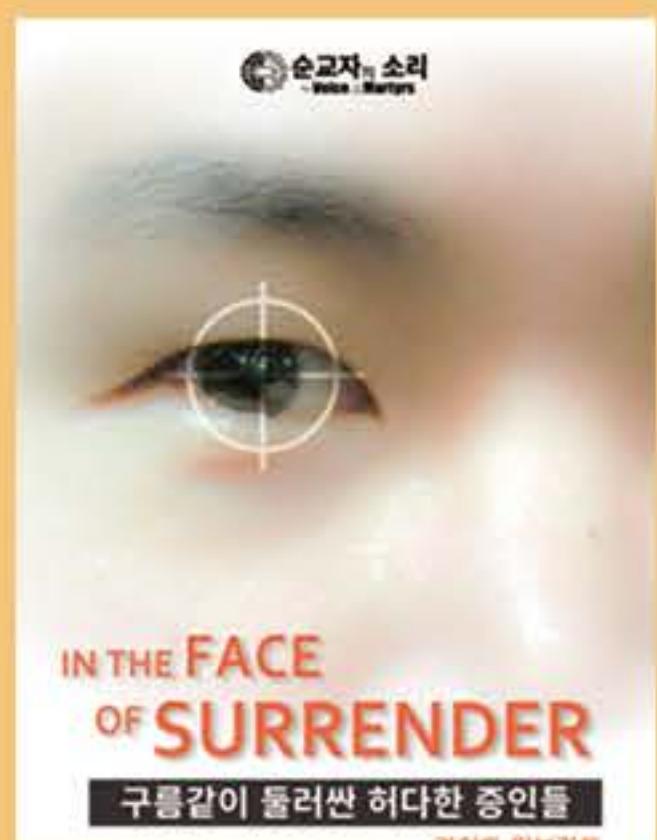
## 『21- 콥트 순교자의 땅에 다녀오다』

2015년 2월에 IS가 공개한 선전용 영상에는, IS 대원들이 오렌지색 옷을 입은 남자 21명을 리비아 해안에서 참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소름 끼치는 이 영상 뒤에는 오렌지색 옷을 입은 21명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그들을 키운 이집트 콥트 교회가 있다. 이집트 콥트 교회는 자신들을 '순교자들의 교회'라 일컫는다. 호평받는 독일 소설가 마틴 모세바흐Martin Mosebach가 이집트를 직접 방문해서 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나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이 책의 한국어 번역판을 꼭 만나보기 바란다.

10,000 원

## 윔브란트 목사의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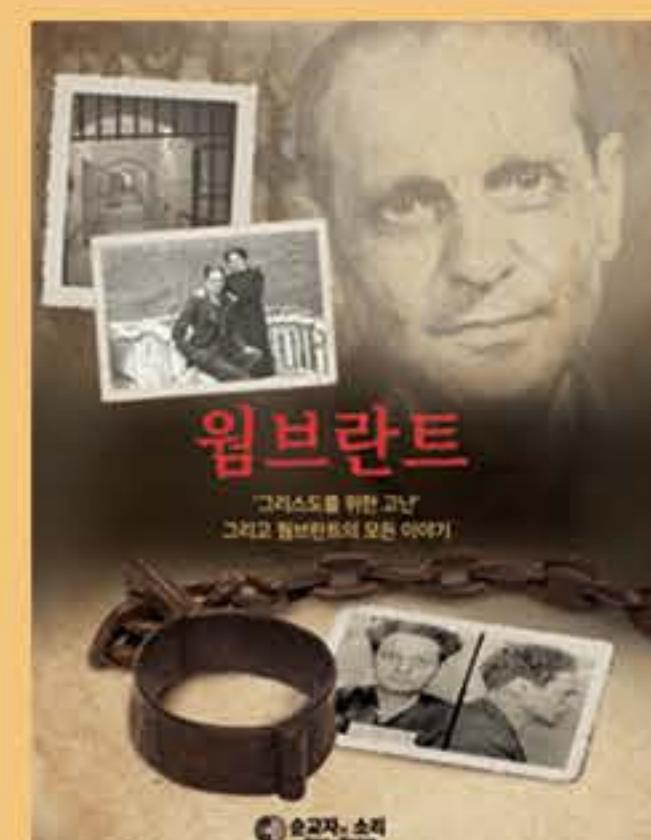
###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극심한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여준 평범한 기독교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50편 이상 수록된 책이다.

10,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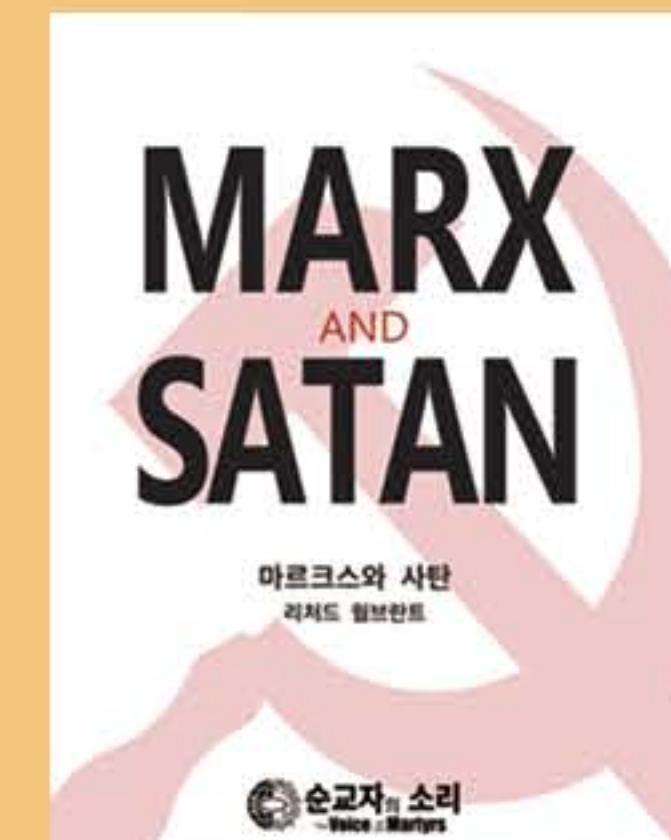
### 『윔브란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5,000 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하나님의 지하운동』, 『목사의 아내』 등 베스트셀러를 하나로 엮어 미국의 유명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 공산치하 감옥에서 14년 동안 갇혀 지낸 리처드 월브란트 목사와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4년을 보낸 사비나 사모의 이야기를 통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배울 수 있다.

### 『마르크스와 사탄』



#### 베스트셀러

리처드 월브란트 목사가 마르크스에 관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공산주의의 영적인 뿌리가 사탄 송배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더불어 마르크스주의의 영적 실체를 폭로한 책. 특히 공산주의에 속을 수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과 젊은 세대에 강력 추천되는 책이다.

10,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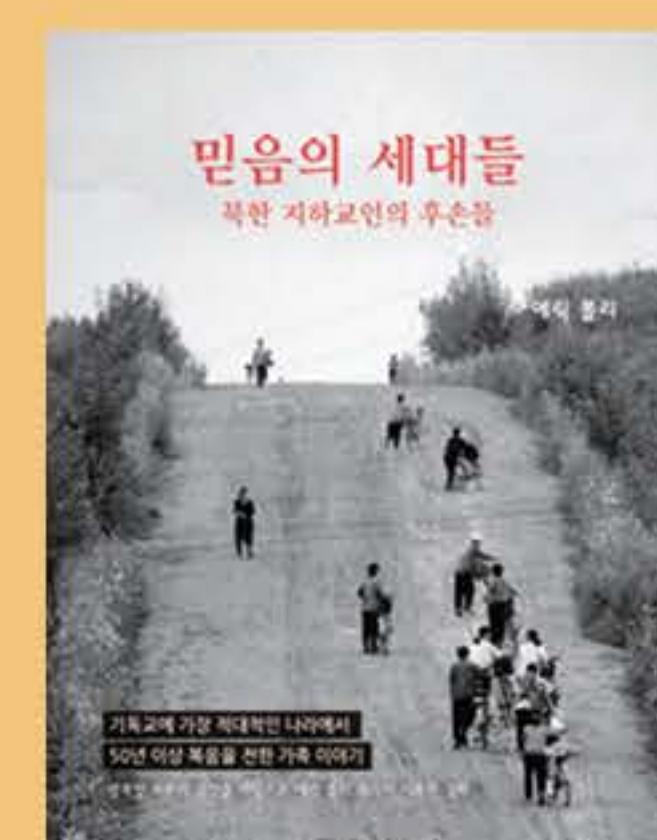
## 풀리 목사의 저서

### 지하교회 시리즈



한국을 포함한 자유 세계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과 핍박이 증가하는 이 시대, 극심한 압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했던 과거 지하교회의 원리를 가르치고, 오늘 우리가 자유 세계에서 어떻게 지하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지하교회 시리즈.

각권 10,000 원



10,000 원

### 『믿음의 세대들』

인류 역사상 기독교에 가장 적대적인 북한에서 한 가족이 어떻게 5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소명을 신실하게 이뤄왔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실화. 성경은 없었지만,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양육한 북한 지하교인 가족 이야기.



### 『만주선교 방법론』

존 로스John Ross 선교사가 중국 선교 전략에 관하여 집필한 책 일부를 발췌 및 번역한 책. 이 선교 방법론은 지금도 북한 선교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10,000 원



25,000 원

### 『조선어 스터디 성경』

성경학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이 인정한 조선어 성경으로 한국 VOM의 모든 북한 사역에 사용되는 성경.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는 성경.

한국 VOM 도서를 구매하기 원하시면,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VOM 사무실:

02-2065-0703 (화~토/9 am~5 pm)

웹사이트: [www.vomkorea.com/shop](http://www.vomkorea.com/shop)

#### 도서 구매 및 무료 소식지(기도달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vomkorea.com](http://vomkorea.com))
- 전화 신청(02-2065-0703)
- 문자 신청(010-3151-2065)  
- 수령자 주소와 성명을 보내주세요.